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

|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 장 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 |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DDDa,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 순서

사회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영상	여성회의 에프터 영상	케이작
	● 공통질문	1쪽
	● 절망과 희망,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서 케이(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DDDa)	2쪽
	● 지식은 어떤 동사(動詞)여야 할까? 시타(여성학 강사)	4쪽
발제	● '현재'의 의미를 저당 잡히거나 '미래'가 없는 것 사이 몽(언니네트워크)	8쪽
	● 여성단체 활동가의 요즘 몇 가지 고민들. 고미경(한국여성의 전화)	13쪽
	● 나는 근근이 살아내는 활동가다!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15쪽
전체토론		

●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

지난 4월 진행됐던 '2011 여성회의'가 남긴 과제가 많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였고, 모여서 좋았지만 그 자리의 부족함이 섬섬하고 현재의 여성운동이 처한 답답함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거대한 장이 누군가에 의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먼저, 그 날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대중과의 소통의 좌절, 여성운동의 재생산, 여성주의자로서 계속....살아가기는 모든 여성운동가들의 현안입니다.

지금, 여성운동의 위기는 여성운동 지속가능성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의 눈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 여성운동은 무엇이며, 여성주의로 활동하는 우리의 '의제'는 무엇인가요? 여성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은 이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그 활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한 여러분의 이슈는 무엇인가요?

● 공통질문

- (1) 여성회의 에프터 제안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고 왜 수락했는가?
- (2) 자신이 처해있는 여성운동에 던지고 싶은 질문(문제의식)은 무엇인가?
- (3) 자신이 재생산하고자하는 그 '여성운동'은 무엇인가?
- (4)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재생산'은 무엇인가?
- (5)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과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절망과 희망,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서

● 케이(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DDDa)

활동가의 삶에 대한 막연한 그림이 있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적인 그림. 누가 어디에 취직했다는 등 누가 무슨 시험을 붙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내 상태가 불안해지면서도 어디 한 구석에 쥘려 놓은 희망이라도 되는 듯이 그 그림을 꺼내보곤 했다.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내게 즐거운 조직 생활 그러나 빈곤한 삶을 의미했고, 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은 힘든 조직 문화 그러나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의미했다. 두 가지를 대립되는 도식으로 파악했기에 그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이 나를 덜 힘들게 할지 고민하곤 했다. 하지만 여성회의에서 겪은 일련의 실망스러운 느낌들은 대안적인 삶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돈에 대한 기대감만 포기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고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라면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업과 다를 바 없을 테니까. 가치와 자유라는 환상의 선택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활동가의 삶에 대해 품었던 희망의 가능성을 지워내며 나의 대학 생활을 돌아본다. 스펙 쌓기 대신 여기 저기 부딪히며 활동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대학 생활을 나 스스로에게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대안적인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더 이상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비춰지지 않았고 생각들의 경계에서 남은 것은 패배감뿐이었다.

책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선배 운동가들의 활동은 놀랍고 존경스러웠지만 높은 단상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20대’는 이슈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20대의 이야기는 없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4000원의 시급’으로 유용할 수 있는 인력인 우리들은 ‘20대’를 호명하는 활동가들의 말들 속에서 ‘20대’로 굳어졌고 나는 그 단어 속에 함몰되어 감을 느꼈다. ‘20대’인 나는 운동의 지속을 위한 ‘재생산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나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한바탕 눈물바다 이후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조언들이 쏟아

아졌다. 하지만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조언은 ‘어떤 20대’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나에게 여성주의 재생산이란 같은 고민을 함께 안고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지속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의 태생에 묶여서 벗어내지 못했던 경직된 언어의 틀을 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의 ‘여성’이 아닌 나 개인의 구체적인 욕망에서 시작되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운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싶었고 여성주의적 삶의 즐거운 가능성을 보고 싶었다. 여성회의 본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딘가의 방에서 밤늦게 만났던 활동가들의 고단한 표정이 어른거린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주었던 한 활동가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재생산은 곧 가치의 지속을 의미할 테지만 아무리 대단한 가치일지라도 삶을 양보할 수는 없다. 여성주의 운동이 대의와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는다. 대의명분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 가치의 재생산을 위해서 삶의 지속에 대한 고민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삶에 대한 문제다. 모두들 안녕한지, 정말 괜찮은지, 인사를 건넨다.

지식은 어떤 동사(動詞)여야 할까? 1)

● 시타(여성학 강사)

1. 위치 짓기

(1) 발제하게 된 이유

-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 많았겠구나’, ‘사건이 많았겠구나’ 생각했고, 이 자체가 숙고의 대상이라고 생각. 그만큼, 서로 다른 현장, 역사, 고민,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모종의 축적된 경험이 있다는 의미일 것. (“웬지 좀 그런 느낌”으로 잔상을 남기는, 하지만 열거하자고 들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경험들)
- 여성회의 after가 아니라 여성회의의 목표, 취지, 기대에 대한 after일 것이라고 생각.

(2) 발제자의 위치

- 아무도 누구를 대표하지 않지만, 또한 아무도 시대성과 세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진공의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성학 강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학 연구자/강사 1인으로서 발언하고자 함.
- ‘명예남성’, ‘좌파 페미니스트’, 100인위(40대 회원 “내가 영페미니스트?”), 언니네트 워크 활동가, 여성학 연구자/강사

2. 지식이라는 현장

(1) 연구자/강사로서 ‘나의 운동 현장’이란

1) “무지와 평화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체득한 우리들은, 자신과 딸을 위하여 지식을 얻어야 한다.” - 앨리스 워커

- 경험의 지식화, 지식을 통한 경험 변화, 지식의 소통과 쓰임
- 여성학 지식의 중층적 위치
 - 대학 강의실에서 : 스스로 매력적인 여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지식의 즐거움, '교양'?
 - 여성학 지식공동체 안에서 : '최신 이론 따라잡기' 이상이 되기 위한 지식생산 양식 고민
 - 여성학 지식공동체 바깥에서 :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여성학, 인용되지 않는 지식
 - 여성운동단체와의 관계에서 : 누가 전문가인가?

(2) '재생산'에 대한 고민이라면

- 물론 먹고 사는 문제
- 대학 바깥에서 여성학 지식이 소통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다는 문제.
- 페미니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들?
-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 : 필요한 상황,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 '시기상조'를 뛰어넘는 사람들
- 평생 진화하는 여성주의자로 살고 싶다.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 : 결국 무엇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 (생계, 보람, 모델, 커뮤니티 등)

3. 진화하는 영혼을 위한 소통의 방법론

(1) 빈곤한 접촉면, '이미지'를 상대로 말하기?

- 나이와 세대에 대한 기존의 통념으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 20대에게 '발랄함'이나 '열정'을 기대하는 것, 50대에게 '선생님' 노릇을 기대하는 것. (성역할 만 큼이나 연령역할 역시 사회적 구조)
- 나이에 기반한 권위주의를 비판하면서 일상적 권력관계가 문제화되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 한 번도 자신을 '낀세대', '막차'라고 느껴보지 않은 여성주의자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있을까?

- 페미니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듯이, 다른 시대, 세대, 역사, 현장을 지닌 여성주의자들과의 접촉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서로를 ‘이미지’ 이상으로 알기 어렵고, 개별적 차이를 간과하면서 ‘그들’(그 세대, 그쪽 판)로 동질화하게 된다.

ex. ‘발랄한’ 영 페미니스트? ‘우울한’ 20대? ‘돈 많은’ 선생님들? ‘보수적인’ 선배들?

(2) 단상들

- 신뢰는 갱신되어야 한다

: “여성주의자가 되고 나서 인생이 피곤해졌다”고 말하던 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여성주의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 세대 간에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고만 벌어지면 다 세대문제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그 세대의 발언이 되어버리는, 이미지화된 소통을 하기 쉽다.

: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왜 모여야 하는가를 계속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면, ‘모여서 감동’이라는 것은 동상이몽에 끝날 수밖에 없다.

- 생까지 앎기 : 우리 모두 변화하는 주체라는 것²⁾, 역설적인 존중

- ‘이미지’에 기대하고,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 세대의 차이는 있지만 입장의 차이와 구분되어야 한다

: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세대의 역사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 선을 긋는 것은 용감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은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선배/후배의 선은 움직이며, 배움은 도처에서 누구로부터든 온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후배가 없는 운동은 역사가 서사화 될 수 없다.

: 여성운동가는 누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가?

2) “나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나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던 이론에 지조를 지키면서 30년 전과 똑같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단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야겠지요. 살아있는 몸을 가진 나는 시대를 호흡하면서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비밀관성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드는 미지의 경험이 덧붙여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 우에노 치즈코, <경계에서 말한다> 188쪽

- : 새로운 의제는 항상 0에서 시작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는 항상 ‘고아심’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
- : 선-후배 관계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얼마나 관습적인가.
- :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다시, 소통(논쟁, 배움, 확산, 갈등)의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
- : 소통의 방법론과 접촉면이 부재할 때,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계급, 입장, 경험, 역사의 차이는 자꾸만 세대문제로 바뀌어 버린다.³⁾
- 여성운동의 역사가 중요한 지식으로 소통되어야 한다는 생각.
 - : 공부하는 페미니즘, 진화하는 페미니즘, 전환하는 페미니즘
 - : 서로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

3) 꿈틀 & 물고기 (2004), “세대 논쟁이 차이를 죽인다”, 월간 언니네 (www.unninet.co.kr) 2004년 11월 특집 "영 페미니스트?" 중. ;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특집, “선배노릇 후배노릇” (2003년 여름호, 25호).

‘현재’의 의미를 저당 잡히거나 ‘미래’가 없는 것 사이

● 몽MONG(언니네트워크)

(1)

여성회의에서도, 여성회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도 '입을 떼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물론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다...). 여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냐'며 궁금해 했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서로 궁금해 했다. 물론 후자 쪽 사람들은 훨씬 더 조심스러워했다. <여성회의, 애프터를 신청합니다>에서 이 조심스러움에 담겨진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있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4월 여성회의에서 나온 '대학 여성주의자'(대페) 혹은 '젊은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세대갈등'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이야기되고 있고, 그동안 여성운동 내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접촉점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여성회의에서 언니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 (뭔지 잘 모르지만) 재미있고 신선한 운동단체'로 이해된 것 같다. 그래서 여성회의를 계기로 현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문제의식, 재생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내 경험과 위치에서 '어떤' 세대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젊은' 활동가로서 이야기할 것인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젊은 세대'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젊다'는 것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포함해서.

(2)

여성회의 기획 단계에서도 몇 년 사이 '단체' 혹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네트워크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의 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왜 운동이 아

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세션을 마련하고자 고민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주니어' 활동가들의 세션으로 꾸리고자 했었다)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법·제도 개선에 주력했던 여성운동이 인문학, 미디어, 지역공동체 등 일상 문화를 바꿔나가는 생활밀착형 운동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¹⁾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적인 네트워크 단위가 아니라도 여러 단체들도 이미 주요 이슈나 활동방식에서 이런 변화의 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조직의 해체에서 개인-나 자신-의 집중으로, 다시 '나 자신'이라는 개별성을 넘어서 유목적 주제, 어디로든 연결되고 접속하는 주체를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게다가 '생존'이 유일한 가치로 일상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에서), 내 주변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여성주의 운동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개인'과 '경제'가 규율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주의자로서 정치화하고자 하는 일상을 '단체 활동'으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황망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한다.

언젠가 내가 다른 언니네트워크 비상근 활동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넓은 차원에서 보면 좋은 일 아닐까'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전에 나보다 나이/연차가 높은 활동가가 나와 비슷한 말을 했을 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토론회 : 왜 '지속가능'인가?>라는 토론회에 가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와 나이도 세대도 운동경험도 전혀 다른 이른바 '윗세대' 활동가의 '어렵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감정이입했는지!

<여성회의, 애프터를 신청합니다>의 주요 문제의식이기도 한 '여성운동의 재생산을 누구의 눈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여성운동의 재생산'에 대한 '다른 생각'을 발생시키는 많은 차이들 중에서 '세대'가 중요한 요소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성회의에서 발산된 일련의 이야기들을 나 스스로도 '세대문제'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주위에서 '세대갈등이 문제'라는 말로 수렴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에도 모두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언니네트워크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라는 것은 '동일한 입장' 혹은 그에 대한 '동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공유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의 공유가 나이

1) 여성신문.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09. 6. 5.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인터뷰)

나 세대로 '자연스레'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여성회의 '뒷이야기 현장'에서 확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여성회의 둘째 날 밤 '젊은 활동가들'의 '뒷이야기 현장'이라 이야기되는 곳에는 나이/세대/경험이 다른 활동가들이 섞여 있었고, 대폐들이 상처받았던, 대폐의 욕망 혹은 현실을 묻기 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고 이야기된 사람들 중에는 나이/세대 차가 많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3)

'여성운동의 재생산'을 이야기할 때에도 대폐나 대폐의 경험을 가진 '젊은' 활동가들의 상태나 조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입장들이 이야기되는 상황은 '어떤 조건이 지속/변화되어야 여성주의 활동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 논의에서 발언/해석/분석하는 주체가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어서라기 보다, '청년 세대의 미래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식의 언설이 넘쳐나는 청년/대학생 운동의 재생산 담론이 가진 어떤 한계에 대한 고민을 여성주의 운동에서 언어화하거나 소통할 수 없을 때, 내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은 '신자유주의에 찌들어 탈정치화 되어 구제할 수 없는 세대'에서, '88만원'의 우울한 세대로 변모했다가, 청년실업과 신빈곤 및 '미친등록금'의 희생자로 추모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²⁾ 그리고 또 최근에는 등록금 집회 등을 통해 '드디어 자신의 위치와 계급을 인식하고 정치화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청년 혹은 대학생들이 탈정치화 됐다고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인, 그래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개인은 어떤 역사와 맥락을 가진 개인인가라는 논의는 넘쳐나는 20대 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정체화하든 외부의 호명이든, '현재의 청년 세대가 자기 자신으로만 파고드는 탈정치화 된 세대'라는 말과 '청년 세대의 미래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은 '젊음'을 특권화하고 나이/세대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당연시 한다는 맥락에서 사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구속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전, 미래, 나라, 희망, 시도, 치열함, 활력, 순수함, 가능성, 열정(=그래서 '끓는 피')'이라는 말은 모두 '젊은 사람'에 대한 표식이다. 사회운동의 주체는 '젊은 사람'이라는

2) 더지(언니네트워크 활동가), '그날 저녁의 페미니즘, 새벽의 아이디어 그리고 로그인', <2011 여성회의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 2011년 4월 29일 발표문 중.

전제, 젊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대신 분노'해야 하고 '분노하게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일어서는' 시도나 도전을 해야 한다는 전제, 그러한 시도나 도전이 '젊은 사람'에게만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전제,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정치화 되었다는 '비난'도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걱정'도 모두 가능하고 다른 세대 집단에 비해 관심을 받는다(물론 모든 청년이 이런 특권화된 주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으로, 나이든 세대에게 '도전, 미래, 나라, 희망, 시도, 치열함, 활력, 순수함, 가능성, 열정'은 '맞지 않는 옷'이다. 이미 운동사회에서 구를 대로 구른 활동가가 순수하다는 평을 들으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하면 '자신만의 확고한 운동 이슈가 없는' 것으로, 개별 사안마다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면 '어른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없는' 것으로, 여기저기 의견을 묻고 고민하면 '자기 운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불안을 드러내는 것도, 그 불안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모두 애매한 위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2010년 말, 뉴스데스크 패러디 합성 사진

작년 말 뉴스데스크를 패러디한 합성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1982년생 여러분 이제 곧 30살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 사진은 실제 82년생들 사이에서 '연말인사 겸 안부' 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³⁾ '이제 곧 30살이니 정신 차려라, 철없던 20대를 벗어나서 어른이라는 나이에 맞게 살아라'는 의미일까? 이 사진은 '잉여'라는 말이 유통되었던

것처럼 스스로 부모세대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피터팬 콤플렉스'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20대 후반들의 자조적인 유머로 유통되었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젊은 세대의 활동가는 늘 '성숙'을 준비하는 시기, '큰 판을 읽을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운동방향에 대한 분석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라 크게 기대 받지 않고 스스로도 그렇게 의미화하기 어렵다(물

3) 주간한국, '이신조, "서른 직전 여성의 성장일기죠"', 2011년 2월 25일자 참고

론 그래서 그게 큰 결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세대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무'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일을 스스로를 기획해본 적 없는' 젊은 세대의 특징으로 취급되거나 책임감이 없다거나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대체로 젊은 활동가들에게 '일 진짜 잘한다'는 평가는 있어도,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판을 입을 줄 안다'는 평가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언니네트워킹에서 30대의 경계에 있던 활동가들 중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히 30대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다(나도 그 중 한명이다). '젊음'이 '도전, 미래, 나라, 희망, 시도, 치열함, 활력, 순수함, 가능성,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만큼 '불안'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는 '젊음'이 자원이 되거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현재의 활동은 늘 '대기' 활동이나 '사전 준비' 활동으로 여겨진다(언니네트워킹 다른 활동가의 말처럼 그래서 늘 '차세대'라 불리는 집단은 '등장'만 화제가 된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말은 젊은 활동가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일 테지만, 누구한테나 동일한 방식으로 나이가 작용한다는 것(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을 기대하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인식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현재의 조건이나 지향과는 별개로 나이에 따라 역할, 가능성과 상상력이 고정되고 규율되어 있고 그것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사회도 그것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재생산이나 지속가능한 여성주의 운동을 고민하다보면 '젊은' 활동가의 위치에서 '젊음'을 특권화 시키는 재생산 담론이 나에게 어떤 기회와 유예로 주어지는지, 그것이 또 나와 다른 세대의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기대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한 채로, 나이 들어서에는 미래가 없는 현재에 갇힌 채로 운동해야 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걸음을 떼기 어렵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세대를 말끔하게 구분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운동을 하는데 다양한 세대 안에서 나이와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대되고 배치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새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지, 그럴 때 어떤 삶을 구상하는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단체 활동가의 요즘 몇가지 고민들.

● 고미경(한국여성의 전화)

1.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2009년 ‘ 임파워링·연대 그리고 변화 :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 활동가의 성장과 양성 필요(여성의전화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 ‘활동가의 성장- 지속가능성’을 힘들게 하는 것들
 - 소통을 제해하는 조직문화
 - 활동가를 소진하게 하는 업무 환경
 - 비전과 전망의 부재
- 활동가 성장을 위하여
 - 여성주의적 가치가 살아있는 조직
 - 활동가를 위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많은 조직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 운동방식과 여성운동 의제의 새로운 변화
 - 여성주의적 조직문화 실현
 - 차세대 활동가의 양성
- 포럼 그 뒷 이야기

2. 여성운동에 던지고 싶은 질문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 여성운동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고통받는 현실, 변하지 않는 현실. -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여성운동에 대한 속상함
- 여성회의 애프터 제안을 받았을 때- 지속가능성, 운동형태
- 지금 이순간의 고민 몇 가지
- 발심과 실천의 문제 그리고 묵묵함.

3. 자신이 재생산하고자하는 ‘여성운동’은 무엇인가? (요즘의 고민들)

- 나는 왜 여성운동을 할까
- 의제선정과 활동방식의 문제
- 운동형태- 여성운동의 형태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 여성주의적 가치와 ‘조직’은 충돌하는 것일까?
- 내부 소통의 문제 - 깊음.
- 많은 이들이 함께 할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4.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과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세대말고 다양한 여성운동의 활동경험을 가진 활동가로 얘기하자.
- 서로를 좀 깊이 이해하자.

나는 근근이 살아내는 활동가다!

●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1. 가까운 과거의 무기력. 언제나 도망가고 싶다

- 소외된 인간의 쓸쓸함을 안고 살다 학생운동에 기웃거렸고, ‘혁명을 믿느냐?’, ‘운동은 고통이다’라는 선배의 말이 무거워 도망갔다. 거대담론보다 재미있으며, 내 삶에 밀착, 실용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 여성운동 하는 공간을 찾았고, ‘무섭지 않아 보이는’, 나를 억압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시작.

- 바야흐로 담론의 폭발인 듯 보이는 ‘20대’에 대해 모종의 소외감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20대의 모든 존재조건(등록금, 아르바이트, 청춘담론)이 이슈가 되고 있다. 물질적인 나이는 지나왔을 지라도 20대와 비20대라는 세대론의 등장 속에서 끼인 세대로서의 존재적 문제에 직면한다. 늘 여기 있던, 근근이 여성운동하던 나와 같은 부류는 언제 주목이라도 받았던가? 구체적인 운동의 고민들로 밀착되어 있는 지지집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 여성운동도 ‘운동’이므로 그 역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웅을 만들고 대표성을 부여하고 선명한 이미지화 작업을 하는 것은 운동의 어떤 관성이었다. ‘김예슬’도, 여성회의에서의 대표성논란도 결국은 도식화된 인식의 회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여성주의자들 또한 넘쳐나는 ‘20대 담론’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당사자를 조우한 것에 어느 정도 경도 됐다고 본다.

- 나는 총5년의 단체 활동 중간연차의 활동가이며 운동의 역사가 20년이 넘는 소위 메이저 단체에서 일한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월급형태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회원 3만여 명, 총 활동가는 20명인 조직 안에 있다. ‘큰’ 단체에서 일하는 중간연차의 활동가이므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역할, 내부에서 요구받는 기대와 책임을 의식하고 산다. 이미지로 오해도 많이 받는다(부르주아 단체, 부인회, 올드함 등).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아주 많다. 해마다 그만둔다고 하면서 근근이 활동하고 있다.

2. 조직활동가,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서 존재하기

(1) 올드함의 무게, 왜 이렇게 쓸쓸할까?

- 1987년에 탄생한 진보적 여성운동 중 하나가 나의 활동 공간이다. 그런데, ‘젊다는 것은 급진이다’는 편견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발견한다. 조직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실제 활동가들의 평균 나이를 헤아려 본다든가 하는 노력은 올드하고 싶지 않은, 의식화된 노력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군가는 ‘조직운동 내부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올드하고 조직보위가 곧 운동의 재생이다’는 관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나 스스로 긴장감이 있어서이다.

- ‘조직 활동가’라는 정체성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 활동방식이 다양화되고 상근활동가와 회원대중이라는 구도 속에서 하는 활동이 공감받지 못할 까봐 두렵다. 조직, 회원, 이야기 발굴자라는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 조직의 골레는 매너리즘에 젖게도 한다. 어떤 내담자가 ‘간접경험’만으로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대중 기반에서 유리된 여성운동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2) 집단적 소통의 고통, 살 떨리며 옥상에 올라본 적 있는가?

- 나는 도저히 너와 활동하지 못하겠다며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있다(여성주의자인데). 묵힌 감정의 찌꺼기들을 길어 올리고, 아주 유치한 관계의 오해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 작은 한숨도 힐난도 소통이어야 한다. 중간연차가 되면서 책임도 커졌는데, 그 책임을 작동하는 방식에서 수많은 싸움과 오해, 화해, 거리두기, 공론화가 있었다. 관리자가 되지 않으려는 발버둥과 문제제기 받는 것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그 자체로 운동과제라고 생각한다. (팀장/회원 이었던 그녀: 위치에 따른 소통의 역학). 극심한 감정노동을 수반하지만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함께 책임지고 설득하고 논쟁하는 것은 재생산하고자 하는 무엇이다.

(3) 조직운동방식에 대한 질문

- 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을 재생산하는 것인지, 여성운동을 재생산하는 것인지, 그러나 내가 있어서, 조직은 나의 색깔로 변화할 수 있고, 나 또한 변한다.

- 일방향성, 조직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을까? 동원과 계몽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운동방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대중이나 회원에 대한 일방적 소통, 사람들의 소통의 욕구와 참여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할까? 시민운동의 영역이 분화발전하면서 대의 기능은 국회, 정부부처로 이양, 연구자들의 전문성에 위축, 최근 트위터의 슬릿 워크 사례처럼 단체 보다 개인이 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상황 등 여성운동이 축소되고 지지와 참여에 대한 기존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촛불시대 이후로 조직 중심의 운동이나 참여방식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됐다.

-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가 지엽적- 법 언어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 무조건 쉽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넘어서는 말하기 주제와 공감대를 발견해야 한다. ‘언어’를 통한 문제제기와 언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운동이 갖는 제한성을 캠페인 운동이 재생산하기도 한다.

(4) 신자유주의, 보수와 논쟁하지 않는다는 비판

- 나의 운동은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나? 인간적 존엄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나? 타자 ‘남성’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회로에서만 돌고 도는 느낌이다.

-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강화 속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평등 논리는 쉽게 공격당하고 여성은 누구인지, 얻고자 한 권리가 무엇인지(법적 권리였는지, 일상의 정치화였는지), 평등이란 무엇인지 철학적인 논의부터 동성애, 성노동, 낙태, 대리모, 군대, 기혼여성과 비혼여성, 노동자계급여성, 중산층 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의제가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방향 찾고 입장을 마련할 만한 의제들을 깊이 있게, 혹은 적적할 시기에 다루지 못한다.

3. 재생산 하고자 하는 여성운동

(1) ‘여성’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여성운동

차별금지법 사안이 여성이슈일 수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중심으로 만난 ‘여성’주체들은 여성운동의 주체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회원, 성소수자 그 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여성’운동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의 역사 위에 있지만 여성운동의 주체와 주제에 대한 확장은 전략적 수준이든, 정당성의 수준이든 요구받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의 조건, 물질 토대

너도나도 빈곤한 시대이다. 재생산이란 결국 활동가들의 영혼의 자유 즉,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고 틀에 도전하는 여성주의적 상상력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활동가들은 무기력하고 삶과 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갖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행복해지자고 도를 닦을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여성운동 활성화를 통한 부수입의 증대....)

(3) 전략들 사이에서 여성주의적 세계관을 잃지 않는 것. 다시 그것을 경전삼지 않는 태도

거대전선 앞에서 여성주의가 부차화 되거나, 필요이상 권력집단으로 부풀려지는 것을 경험한다. 전략은 수단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판단의 뿌리가 여성주의적 세계관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동시에, 자기존재의 정당성을 엄격한 여성주의에서 찾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타인이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는 공격의 근거로 활용되기 쉽고, 완벽한 여성주의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4) 단체활동가 자체의 재생산이 아니다

현실은 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재생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회원층은 존재하지만 그 회원층만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속 단체 활동가의 재생산에 국한돼 있지도 않다. 자신의 운동이, 그 운동의 이슈가 재생산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 '여성운동'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

4. 듣는 의무와 말할 의무, 침묵의 자유

- 여성단체에 요구하는 끊임없는 입장들. “니 생각은 어때?”라는 질문 앞에서 한없이 귀찮아지는 마음이 있다. (“겨털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점을 요구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여성사안이 아닌 것이 없다. 여성주의자로서 말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안을 외부로부터 선택적으로 강요받는다.

- 별로 칭찬받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띄워줄 때의 불편함이 있다. 누군가를 특별한 존재로 의미부여 하는 것도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왜곡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신뢰도 불편하고, 여성운동 내부의 소통에서도 때로는 무조건 그냥 들어주어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또 때로는 억지소통보다는 침묵이 낫다고 생각한다.

5. 무기력해도, 타협적이어도, 모순적이어도 ‘괜찮아’라는 위로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그를 나의 장소에 환대하는 행위이다. 그에게 나의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나의 장소를 그와 공유하며, ‘우리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환대의 행위이다. 이 환대를 통해 그와 함께 ‘세계’를 만든다. 세계를 객관적으로 주어진 외부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소통하고 경쟁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 「이것은 왜 청춘이아니란 말인가」, 엄기호

- 혁명은 안 믿지만 진심은 믿는다. 인간이 변할 수 있다, 우울함도 결국은 동력이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같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나의 머릿속의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 공감할 수 있도록 내 놓는 것 자체가 수행인 것 같다. 나는 내가 좀 더러운 말도 하고, 지쳐있거나, 바르지 않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은 날카로운 비판과 뜨거운 논쟁 속에 있다. 그 소통의 고통을 직면하고 나서야 갖게 되는 온기에 있다.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

● 6

전체 토론

● 참가자